

SKT, '이프랜드' 미·유럽·동남아 본격 진출... 글로벌화 가속

각국 주요 통신사 메타버스 협약 국가별 최적화 형태 서비스 제공 유영상 사장 "사업영역 지속 확대"

SK텔레콤이 글로벌 유수의 통신사들과 함께 미·유럽·동남아 시장으로의 메타버스 서비스 진출을 본격화한다. MWC 기간 중 미국·독일·동남아의 주요 통신사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 협력 체결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3에서 독일의 도이체텔레콤, 미국의 티모바일US, 동남아 11개국 사업자 악시아타, 말레이시아의 셀콤디지와 메타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49개국에 동시 출시한 데 이어, 주요 글로벌 통신사와 함께 각 국가에 최적화된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번 이프랜드 글로벌 진출 협약을 위해 SK스퀘어의 박정호 부회장, SKT의 유영상 사장, 도이체텔레콤의 팀 회트게스 회장과 닥터 한스 위자아수리



유영상 SKT 사장과 팀 회트게스 도이체텔레콤 회장이 MWC23 SKT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SKT

야, 비벡 수드 악시아타 공동 CEO, 닥터 이담 나와위(Datuk Idham Nawawi) 셀콤디지 CEO 등 ICT 관련 글로벌 주요 기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SKT는 각각 1억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글로벌 통신사와 협력함으로써 이프랜드가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미국 고객 대상 마켓 테스트 진행

먼저, SKT는 독일 대표 통신 사업자 도이체텔레콤, 전 세계 통신사 중 기업 가치 1위 사업자 티모바일US와 이프랜드의 독일·미국 진출에 대해 합의했다.

SKT는 27일(현지시간) MWC주 전 시장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에서 독일 대표 통신 사업자 도이체텔레콤과 미팅을 갖고 이프랜드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SK스퀘어의 박정호 부회장, SKT의 유영상 사장을 비롯해 각사의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1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도이체텔레콤 측은 팀 회트게스 회장, 클라우디아 네맛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이체텔레

콤과 티모바일US 고객을 대상으로 이프랜드의 마켓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며, 각 지역에 특화된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마켓 테스트는 이프랜드 독일어 버전이 출시되는 2분기를 기점으로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각 사 고객 대상 마켓 테스트는 작년 5월 SKT와 도이체텔레콤의 ICT 동맹 강화를 위한 사업 협력 논의에 따른 결과물이다.

SKT와 도이체텔레콤, 티모바일US는 이번 고객 대상 마켓 테스트를 통해 유럽과 미국에서 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남아 통신사업자와 메타버스 서비스 협력 추진

SKT는 28일(현지시간) MWC 현장에서 11개의 ASEAN 및 남아시아 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서 약 2억 가입자를 보유한 악시아타, 말레이시아 1위 사업자인 셀콤디지와 각각 메타버스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미팅에는 유영상 SKT 사장과 닥터 한스 위자아수리아, 비벡 수드 악시아타 공동 CEO, 닥터 이담 나와위 셀콤디지 CEO가 참석했다.

SKT는 악시아타의 전체 자회사 대상 이프랜드 서비스 확장 및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비즈니스 창출 및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반 사업 기회 협력 등에 합의했다.

또한, SKT는 셀콤디지와 말레이시아 시장 내 이프랜드 이용자 규모 증대 및 신규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T는 K-콘텐츠 등 한류 문화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동남아 지역에 메타버스 서비스를 진출함으로써, 이프랜드의 서비스 영역 확장 및 진출로 파생될 다양한 사업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유영상 SKT 사장은 "이프랜드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각국 주요 통신사들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사업주들과의 협력을 통해 SKT 메타버스 서비스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미래먹거리·혁신트렌드 살펴야”... 韓 ICT 거장 총출동

최태원 SK 회장

첫 MWC 참가... SKT 전시장 방문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장 메타버스·XR 등 협력방안 모색 구현모 KT 대표 디지털물류솔루션 출시 계획 발표

한국의 ICT(정보통신기술) 경영진이 혁신 트렌드를 경험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3'에 총출동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텔레콤의 'AI(인공지능) 컴퍼니' 혁신을 응원했고,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MX(모바일 경험) 사업부장(사장)은 XR(확장현실) 협력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연임 포기'를 선언한 구현모 KT 사장은 "디지털(DIGICO·디지털플



노태문 삼성전자 MX(모바일 경험) 사업부장(사장, 오른쪽)과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삼성전자 IM사업부 전시 부스를 함께 참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랫폼기업) KT를 계속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을 전시장 방문, 취재진에게 "SK텔레콤이 통신회사에서 AI 컴퍼니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간 키워왔던 기술을 다른 영역과 융합해 사람과 사회에 기여할 수



28일 오후(현지시간) 구현모 KT 대표가 '협업(Co-Creation)을 위한 시간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SK텔레콤의 AI 컴퍼니 전환을 응원했다. 최 회장의 MWC 참가가 이번이 처음이다.

유영상 SKT 대표는 AI 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해 고객·기술, 시공간, 산업(AIX), Core BM, ESG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AI를 모든 곳에(AI to Ever

ywhere)'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유 대표는 파트너들과 함께 참여해 K-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팬텀AI, 사피온, 베스핀글로벌, 몰로코, 코난테크놀로지, 스윗, 투아트 등 K-AI 얼라이언스 파트너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과 유 대표는 같은 날 삼성전자 전시관을 함께 둘러봤다. 메타버스와 XR 협력을 묻자 노 사장이 "아직 (다바이스)를 선행 개발 중이고, 완성도가 높아지면 발표하겠다"고 말하자 유 대표는 "다음 XR 기기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SKT의 메타버스도 잘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한 전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SKT의 'K-AI 얼라이언스'에 삼성전자가 참가하는 방향의 AI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유 대표는 "당연히 같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 전략을 전 세계에 강조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통신사 싱텔과 협력해 오는 9월 현지 운송 최적화 솔루션 출시 계획도 밝혔다.

구 대표는 '협업을 위한 시간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키노트 세션에 참석해 "디지코 전략을 통해 기업-소비자간(B2C)에서도 단순 연결 서비스를 넘어 미디어 플랫폼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2021년 기업간(B2B) 디지털 솔루션 사업 매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 대표는 디지털물류 솔루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싱가포르 대표 통신사 싱텔과의 협력 계획도 밝혔다.

KT는 오는 9월 KT의 AI 기술과 싱텔의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정보기술(IT) 솔루션을 결합해 싱가포르 현지에서 운송 최적화 솔루션을 상용 출시하고 향후 아시아태평양(APAC) 시장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최태원 회장, 스페인 총리 면담... 부산엑스포 유치 교섭

(SK·대한상의)

尹 대통령 친서 전달... 협력방안 논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3개국을 순방중인 최태원 회장이 첫 국가로 스페인을 방문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교섭을 적극 추진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달 28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총리 궁에서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스페인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 교섭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가 환담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번 면담현장에는 한국측은 대통령 특사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상훈 주스페인 대사, 홍성하 유치사절단 위원, 성일경 삼성전자 구주총괄 부사장

이 참석했다. 스페인측은 산체스 총리와 외교 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현장에서 최태원 회장은 양국간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스페인의 지지를 요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스페인인 신재생에너지 강국이며 한국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을 포함한 전략적 산업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유플러스-노키아 '오픈랜 테스트베드' 공동구축

LG유플러스가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사인 노키아와 상용망 환경에서 오픈랜 장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공동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회의를 갖고 오픈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현지시간 지난 28일 오후 진행된 회의에는 LG유플러스 김대희 네트워크 인프라기술 그룹장과 이상현 NW선행개발담당, 노키아 마크 애킨슨 무선장비개발총괄 등이 참석했다.

양사가 협력해 국내에 구축할 '오픈

랜 테스트베드'는 오픈랜 국제 표준 규격에 기반한 O-DU(분산장치)와 O-RU(안테나) 장비를 연동해 망을 구성하고 상용 가입자를 수용하는 등 5G 오픈랜을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오픈랜 테스트베드에는 국내 장비 제조사인 삼지전자가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장비 간 연동 테스트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노키아는 O-DU 개발 및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고, 삼지전자는 O-RU를 개발한다. 개발된 결과물은 LG유플러스 상용망에서 검증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